



사를 초청, '지역단위에서의 행복지수와 행복정책'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회 함께 진행했다.

연구회는 우선 3월말까지 행복이론 학습과 지표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총6회에 걸쳐 추진하는 등 점진적인 행복연구체계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홍성효 연구회장은 "행복연구회는 올해 전략연구과제(충남 행복지수를 위한 지표설정과 정책개발)와 연관된 기초연구와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상호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연구회는 박진도 원장을 비롯한 원내 연구진 8명과 통계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국민 삶의 질 측정 및 분석 전문가를 비롯한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충남발전연구원, '사랑의 연탄 배달' 니눔 실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1월 18일 공주시 관내 영세가정에 연탄 3천장을 전달하며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주연탄은행'과 공동으로 추진된 이번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는 충발연의 원우회 설립 5주년을 맞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비록 많은 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넉넉한 양은 아니지만, 연일 이어지고 있는 한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발연은 농촌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지원 등 전사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랑 나눔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충남발전연구, 부여 도심 상권 활성화 모색



부여군은 지난 2월 21일 여성문화회관에서 롯데북합테마존의 오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시장과 부여시장이 상업활동 위축과 관련, 지역상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현황분석과 낙후된 기반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투자 등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또한, 부여 도심을 함께 직접 걸어보며 시장을 비롯한 상권 형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시장상인과 관계자 등과의 면담도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퍼실리테이션이란 방식으로 진행된 시장주변 노점 및 전통시장과 연계한 주변상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상인, 소상공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및 상권 활성화 사업구상에 대한 비전이 제시됐다.

토론회에 참가한 상인들은 충남도에 상업 활성화 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요구하고, 구역이 지정되면 상권관리 기구 설치 및 문화특화거리

조성, 고객 편의시설 등 구체적인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권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충발연 임준홍 박사는 상권 활성화구역제도의 주요 내용과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상권활성화관리기구 설치,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다만 기반인프라 구축 사업은 시도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한도 내에서 확보해야 하므로 지원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도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박사는 “부여의 상권활성화구역 검토한 결과, 부여의 경우 2개의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과 인구가 감소하고 사업체 증가도 침체인 것을 바탕으로 할 때, 부여 도심의 상권활성화구역제도가 활용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충남발전연구, 행복연구회 발족

— 충남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의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행복연구회”를 발족한다고 2월 9일 밝혔다.

이에 ‘행복연구회’(연구회장 홍성효,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는 2월 10일 오후3시 연구원 회의실에서 연구회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1차 회의를 갖고 인천발전연구원 조승헌 박

관광코스 활성화, 주민과 만남이 있는 착한 여행 추진, 소외계층의 관광향유 기회확대와 유니버설 관광지 조성, 차별화된 유무형 관광자원과 녹색관광산업 육성, 국제적 전략적 메가급 이벤트와 축제의 육성, 지역문화권 관광자원화 국제 휴양관광명소 개발, 지역 관광사업체 육성과 맞춤형 관광 마케팅 강화 등이다.

공간적으로는 해양도서, 내포문화, 역사온천, 백제금강, 녹색유교 등 5개 관광권으로 나눠 개발을 추진한다.

권역별로 보면 태안, 보령, 서천을 포함하는 '해양도서 관광권'은 서해안 해양 관광거점과 관광 레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휴양 관광지역으로, 서산, 당진, 예산, 홍성을 포함하는 '내포문화 관광권'은 내포문화권의 인물, 종교, 민속자원과 연안관광자원이 연계하는 역사 문화관광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산, 천안을 포함하는 '역사온천 관광권'은 충절의 인문문화자원과 천혜의 온천자원을 연계한 문화 휴양 관광지역으로, 공주, 부여, 청양 등 '백제금강 관광권'은 백제역사문화자원과 금강 생태축을 연계한 역사, 생태관광 지역으로, 계룡, 논산, 금산 등 '녹색유교 관광권'은 쾌적한 산림자원 환경과 유교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는 녹색, 문화 관광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계획 기간 동안 투자비는 총 1조964억원으로 관광지 개발에 7천265억원, 핵심 전략사업 1천821억원, 전략 추진사업 380억원 관광 진흥사업에 1천498억원 등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5천105억원을 투입하며 내년 1천467억원, 2014년 1천680억원, 2015년 1천445억원, 2016년 1천267억원 등이다.

문예진흥기금 399건 10억원 지원 확정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개최...지원
금 작년보다 2천1백만원 줄어

충남도는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대상 사업에 399건을 선정, 모두 10억원을 지원한다고 2월 27일 밝혔다.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은 지역 예술 저변 확대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날 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사업 분야 및 지원 금액을 보면, 문학 57건 107백만원, 미술 115건 262백만원, 공연예술 58건 179백만원, 전통예술 61건 146백만원, 청소년 문예활동은 47건 126백만원, 종합예술 35건 97백만원, 국제교류 10건 25백만원, 기타 16건 58백만원이 지원한다.

금년 지원 규모는 지난해 417개 사업 10억2천100만원에 비해 2천1백만원이 줄어든 것이나, 올해 신청건수(521건) 고려시 신청대비 76.5% 선정률로 상대적으로 전년 선정률(89%)과 비교할시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감소한 상황이다.

도는 선정 내용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에 공개한 뒤 3월부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충남 소식

을 영농조합법인 등 3개, 보령시 서해나눔 등 2개, 아산시 다라미 자운영전통테마마을 등 5개, 서산시 팔봉영농조합법인 등 5개, 논산시 포전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3개, 당진시 올리고마을 영농조합법인 등 2개, 서천군 송림영농조합법인 등 2개, 청양군 꽃뚝 영농조합법인 등 3개, 홍성군 내현권역추진위 영농조합법인 등 3개, 예산군 전통어머니 손맛 등 2개 태안군 꾸지나 무골 영농조합법인 1곳 등이다.

이들 마을에 도가 올해 지원하는 예산은 모두 10억9천만원이다.

선정 마을기업 중 특히 올해 2년차에 접어드는 천안 광덕마을회는 지난해 3천200만원 매출에 순수익 1천700만원, 공주시 무르실마을 영농조합법인은 김치체험관과 치즈스쿨 운영 등으로 4천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청양 꽃뚝영농조합법인은 맥문동 직수매 및 계약재배 가공 판매 사업 등을 통해 2010년 5천만원 매출에 순수익 2천만원, 지난해 2억원 매출에 8천4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려 마을기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마을 스스로 마을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시 군별 마을기업지원단 설치 등 지원책을 통해 마을기업의 수익성과 발전 가능성을 제고, 사회적기업으로 연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광객 1억명 시대 관광개발 새틀 나왔다

—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확장·비전으로 ‘애향 충남’ 제시

충남도가 관광객 1억명 시대에 걸 맞는 관광개발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단순히 찾아와 구경하고 즐기는 관광을 넘어 복지와 산업, 녹색, 공정 등의 개념을 도입, 지역 신성장동력으로서 관광의 새 틀을 제시했다.



2월 29일 도가 최근 확정된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2012~2016)’에 따르면, ‘지방관광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희망을 주는 애향 충청남도’를 비전으로 정했다.

목표는 전국민이 찾는 ‘국민관광’, 모두가 이용하고 향유하는 ‘복지관광’, 글로벌 관광명소가 자랑인 ‘휴양관광’, 구석구석 균형성장하는 ‘산업관광’ 등 4가지로 잡았다.

추진 전략은 허니포트형 관광도시 개발과 권역별 연계망 구축, 지방형 관광지 조성과 주변

2020년 충남! 비전과 종합발전방향 새롭게 정립

– 지난 2. 28일 국토부승인 충청
남도 종합계획 확정 공고

충청남도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아 3월 8일자로 확정 공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08년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이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과 연계성,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도정 이념 구현, 그리고 세종시 및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과학벨트 조성 등 지역의 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장기발전 방향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최근 대내외적 여건변화 속에서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기조로 설정하고 살기 좋은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육성,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매력적인 지역문화 창달, 사통팔달의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근심 없는 주거·복지·평생교육 실현, 안정적·창조적인 지역자원의 활용 및 관리,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환경 관리를 7대 중점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종합계획에 의하면 목표년도인 2020년에 충남은 인구가 2009년 207만명에서 240만명으로 지역총생산액은 2009년 67조 550억원에서 125조 7,870억원, 1인당 GRDP

는 2009년 3,231만원에서 5,241만원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2009년 77.7%에서 9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기간동안 67조 3,217억원이 투자되고, 부문별로는 산업경제 부분 24.6%로 가장 높고, 교통정보 인프라 부분 24.0%, 지역개발 도시농촌부분 23.2%, 환경방재 부분 11.9%, 문화관광 부분 11.0%, 지역자원개발 부분 4.0%, 생활복지 부분이 1.3%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5조 3,859억원(37.7%), 지방비는 10조 9,709억원(16.3%), 민자 등 기타가 30조 9,649억원(46.0%)이다.

그동안 도에서는 내실있는 도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효성 있는 집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도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십 회의 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고, 도홈페이지에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고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의회 설명회,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였다.

주민이 사장·직원 '마을기업' 32곳 선정

– 최장 2년 최대 8천만원 지원...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올 3월에 선정된 마을기업을 시 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광덕마을회 1개, 공주시는 무르실마